

(1) 천주교 전래

- ① 천주교의 전래가 시작된 것은 임진왜란(1592~1598년)을 전후하여 이수광(1563~1628)이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天主實義)』와 『교우론(教友論)』 등을 그의 저서 『최봉유설』에 소개한 데서 비롯된다.
- ② 1777년 천진암 주어사에서 천주교 교리공부를 위하여 강학회(講學會)가 시작되었고, 권철신·정약전·이벽 등이 참여하였다.
- ③ 1784년 이승훈은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최초의 조선인 영세자가 되었다.
- ④ 1786년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가 2년간 실시되어 이승훈·권일신·유항검 등이 성직자의 고유한 성무를 집행하였으나 북경 주교가 이를 금지시켰다.
- ⑤ 1787년 이승훈·정약전·정약용 등이 김범우의 집에서 교회의식을 드리다 체포되어 김범우는 모진 고문 끝에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신앙공동체의 출현이 바로 한국천주교회의의 창설로 이어졌으며, 이로 하여금 조정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 ⑥ 1791년 조상의 제사를 천주교식으로 봉교(奉敎)하여 전통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하여 정약용의 외종인 윤지충·권상연 등이 처형되는 신해교난(진산사건)이 있었다. 이에 분주폐제(焚主廢祭)의 죄명으로 전국적인 박해가 강화되었다.
- ⑦ 1794년 주문모(周文謨) 중국인 신부가 최초로 조선에 입국, 잠입하여 선교활동을 폈다. 이 사건으로 최인길·윤유일·지황 등이 순교하였다.
- ⑧ 1801년에 천주교 박해가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전국에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세워 천주교인을 고발하게 하여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역적률로 다스렸다. 이에 수많은 교우들이 순교하였는데, 이를 신유박해(신유교난)라 한다.
- ⑨ 1831년 9월 9일 역사적인 조선교구가 창설되었다. 북경교구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교구로 승격되었다.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조선교구의 초대 주교로 브뤼기에르 신부를 임명하였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교구가 아니고 조선대목구(조선교황대리교구)였다.
- ⑩ 1841년 8월 22일 조선교구는 교황으로부터 조선교구의 주보를 '무염시태(無染始胎)의 성모마리아'로 받아 모시게 되었다.
- ⑪ 1846년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안드레아) 신부가 순교하였다.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솔피골에서 태어난 김대건 신부는 1836년 프랑스 모방 신부의 영세를 받고 북경으로 유학, 예비 신학생이 된다. 그후 1845년 프랑스 펠로엘 주교에게 사제서품을 받고 귀국하여 순교활동에 전념하다가 1846년 9월 16일 서울 새남터(노량진시장)에서 군문효수(軍門梟首)로 순교하였다. 1925년 7월 5일 교황청 교황 비오 11세로부터 김대건 신부에 대한 시복식(諡福式)이 있었다.